

# 《甲骨文合集》의 天文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

李 義 活\*

<目 次>

I. 머리 말  
II. 考釋

III. 맺는 말

## I. 머리 말

甲骨文이 中國 殷墟에서 처음 발굴된 이래,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10여 만 편이나 발견되었고, 甲骨文에 관한 서적이 적지 않게 출판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甲骨文과 관련된 출판 서적 가운데 상당수가 약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어떤 서적은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하고, 어떤 서적은 자체의 착오도 있으며, 어떤 서적은 출판 수량이 많지 않고 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갑골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갑골문을 집대성한 서적의 출현을 고대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郭沫若이 중심이 되어 갑골문을 집대성한 서적을 편찬하기 위하여 1959년 편집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61년 작업을 시작하여, 1982년 《甲骨文合集》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학자들이 고대하던 책이 출판되었지만, 甲骨文 판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古文字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외의 다른 분야 학자와 고문자에 관심이 있어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국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에서도 이런 필요성으로 갑골문 考釋에 관한 연구물들이 약간씩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考釋 작업들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갑골문을 이용하려는 연구자나 중국 고문자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考釋에 관한 연구물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필자는 최근 가장 많이 갑골문을 수록한 《甲骨文集》 가운데 비교적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卜辭를 골라 자세히 고석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甲骨文集》의 牧畜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牧畜과 관련이 있는 卜辭 45편과 <《甲骨文集》의 祭祀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祭祀와 관련이 있는 卜辭 21편, <《甲骨文集》의 官職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卜辭 16편, <《甲骨文集》의 疾病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卜辭 23편, <《甲骨文集》의 方國地理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卜辭 26편, <《甲骨文集》의 狩獵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卜辭 15편, <《甲骨文集》의 曆法에 관한 主要 卜辭 考釋>이라는 제목으로 卜辭 15편을 골라 비교적 상세히 考釋하였다. 이번에는 天文과 관련이 있는 卜辭 13편을 《甲骨文集》에서 선택하여 考釋하고자 한다.

## 凡例

1. 본 논문은 《甲骨文集》에서 天文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 卜辭 13편을 골라 考釋하였다.
2. 선별 기준은 卜辭의 내용이 天文과 관련이 있는 것만 선택하고, 내용이 너무 단순한 것은 배제하였다.
3. 考釋의 차례는 摹本·隸定·今注·今譯의 순으로 정하였다.
4. 摹本한 것 가운데 일부는 龜版 전체도 있고, 어떤 것은 일부도 있다.

이것은 혼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天文과 관련이 있으며 摹本하였고, 만약 天文과 관련이 없으면 摹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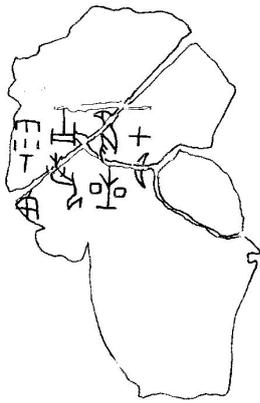
5. 今注는 먼저 이 편의 甲骨이 《甲骨文集》의 몇 번째 版으로, 몇 번째 期에 속한다고 설명한 다음, 매 글자에 관하여 상세한 注를 달았다.
6. 일반적으로 龜版은 下部에(살아있는 거북으로 보면 땅을 향하고 있는 面) 갑골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正面이며(卜辭번호 뒤에 正으로 표기), 그 반대편 즉 짐을 치기 위하여 鑽·鑿·灼 등을 하는 부분을 反面(卜辭번호 뒤에 反으로 표기)이라 한다. 그리고 卜辭번호 뒤에 正이나 反의 표기가 없이 단지 번호만 기록된 것은 모두 正面이다.
7. 今注부분에서 어떤 글자를 설명할 때, 初文과 古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初文은 어떤 글자의 最初의 원시 字形으로, 전적으로 그 글자의 개념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이다. 古文은 어떤 글자의 옛 字形이지만, 그 글자의 개념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假借字이다.
8. 隸定할 수 있지만 현 字書(字典이나 辭典)에 보이지 않아 글자를 표기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내었다.

A	B	C	D	E	F	G	H
霽	翌	出	囧	孛	祿	戡	酉

## II. 考釋

### 1. 제1편

- 1) 隸定 : 「…… A, 庚子藝鳥星? 七月..」
-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11500正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② A: 甲骨文의 이 글자는 從雨 從示로 구성되어 있다. 字書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글자인지 알 수 없다.

③ 庚子: 干支 紀日法으로 庚子일이다. 商代는 天干과 地支를 배합하는 방법으로 날짜를 계산하였는데, 이것이 곧 干支 紀日法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天干과 12地支를 서로 결합하는 것으로, 天干 甲과 地干 子가 서로 결합하여 甲子日이 되며, 60일 후 다시 甲子日이 되는 반복 순환의 날짜 계산법이다. 商代의 干支 紀日法은 중국의 歷代 王朝들이 계속 사용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④ 藝: 갑골문에서 이 글자는 사람이 두 팔을 사용하여 草木을 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本義는 아마도 草木을 심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卜辭에서는 本義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祭名·地名·方國名 등으로 쓰여 지는데, 이곳에서는 祭名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藝祭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⑤ 鳥星: 鳥는 날짐승을 표시하는 象形字인데, 이곳에서는 별자리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甲骨文 星(晶)은 하늘에 있는 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後에 聲部인 生이 덧붙여 지금의 星이 되었다. 鳥星은 별자리 이름이다. 28宿 가운데 남방의 7宿이 있는데 이것이 柳·星·張·翼·軫·井·鬼이다. 이 7宿이 가지런히 일직선상에 놓이면, 하나의 圖案을 구성하는데 이를 「南宮朱鳥」라고 한다. 이 7宿의 중심별이 「星(七星이라고도 한다)」이고, 春分 전후로 초저녁이면 정남쪽에 위치한다. 이곳의 鳥星은 바로 이 7宿을 가리킨다.

⑥ 七月 : 이 占卜 이 거행된 시간이다.

3) 今譯 : 「<……, 庚子일에 鳥星에게 藝祭를 거행해도 좋을까요?> 이 占卜은 7월에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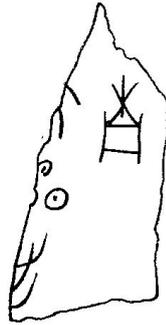
2. 제2편

1) 隸定 : 「大晶出南.」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11504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② 晶 : 甲骨文에서는 晶과 星은 같은 글자로, 반짝이는 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에 聲符인 生이 첨가되어 星이 되었다. 大晶은 곧 大星인데, 정확하게 어떤 별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다.



③ 出 : 이 글자의 甲骨文은 반 지하의 집에서 나아가고 있는 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고대 사람이 穴居(집)에서 외출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出 자는 卜辭에서 「出入의 出」·「出現의 出」·「真人의 이름」 등에 쓰여 지는데, 이곳에서는 出現의 出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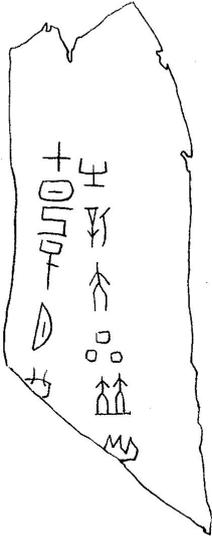
④ 南 : 이 글자의 甲骨文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악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卜辭에서는 대부분 方位詞인 남쪽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假借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남쪽 하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今譯 : 「<大星(큰 별)이 남쪽 하늘에 나타났다.>」

3. 제3편

1) 隸定: 「七日己巳夕B. ……C新大鼎並火。」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11503反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 시기卜辭다.

② 七日己巳: 7번째 날인 己巳일이라는 의미이다.

③ 夕: 甲骨文에서 夕의 자형은 두개가 존재하고 있다. 아마도 달(月)을 표시하는 반달의 형태가 먼저 존재하였으며, 이후 밤(夕)을 표시하기 위하여, 반달에 한 획을 첨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관계로 초기 갑골문(제1기로부터 제4기까지)에는 月은 반달로, 夕은 반달에 한 획이 첨가된 형태로 나타난다. 제5기에 오면 이것이 바뀌어, 月이 반달에 한

획이 첨가되고, 夕은 반달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모두 이같이 기록하여,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 夕은 卜辭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日과 夕은 반대 개념으로, 日은 태양이 있는 낮이고 夕은 태양이 없는 밤을 의미한다.

④ B: 甲骨文에서 이 글자는 뚜껍이 없는 어떤 항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마도 本義는 器物의 이름일 것이다 그러나 卜辭에서는 「날씨」·「人名」·「地名」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날씨로 사용되었다. 趙誠은 《甲骨文簡明詞典》에서“비가 비록 멈추었지만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주위가 흐리고 바람이 부는 음산한 날”<sup>1)</sup>이라고 하였다.

1) 趙誠, 《甲骨文簡明詞典》, 192쪽

- ⑤ C : 이 글자는 字書에 보이지 않는다. 于省吾는 《甲骨文字詁林》에서 “卜辭에서 이 글자는 再又의 又와 有無의 有 福祐의 祐 그리고 祭名인 侑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근원에 관하여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누구의 학설이 옳은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sup>2)</sup>라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有無의 有로 사용되었다.
- ⑥ 新大晶 : 갑골문에서 新은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마도 本義는 나무를 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卜辭에서는 「祭名」과 「新舊의 新」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는 假借義일 것이다. 이곳에서는 新舊의 新으로 사용되었다. 新大晶은 새로 출현한 큰 별이라는 의미다.
- ⑦ 並 : 갑골문 並은 두 사람이 함께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卜辭에서는 連詞인 「並且」의 의미와 動詞인 「가까이·부근」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가까이·부근」의 의미로 쓰였다.
- ⑧ 火 : 東方 7宿 가운데 心宿인 火星으로, 大辰이라고도 한다. 新大晶並火는, 곧 己巳일 밤에 관측한 별들에 관한 기록이다. 並은 比 혹은 近으로 해석한다. 新大星은 곧 新星의 大星으로, 전체의 의미는 火星 부근에 大星이 있다는 뜻이다.

3) 今譯 : 「7번째 날인 己巳일 밤은 음산하였는데 (뒤에 날이 개이고), 火星 부근에 새로운 하나의 큰 별이 출현하였다.」

#### 4. 제4편

1) 隸定 : 「癸未卜, 爭貞 : 旬亡D? 三日乙酉夕月C食, 聞. 八月.」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集》의 11485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

2)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第4冊, 3432 쪽



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 ② 癸未: 干支 紀日法으로, 癸未일이라는 의미다.
- ③ 卜: 龜版에 불을 가하여 나타난 균열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卜辭에서는 「占을 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④ 爭: 이 글자는 卜辭 제1기에 자주 등장하는 貞人의 이름이다. 이 글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 劉鵬은 戠로, 葉玉森은 殺로, 唐蘭은 牽으로, 于省吾는 처음에 曳로

해독하다가 뒤에 爭으로 바꾸었다. 屈萬里는 于省吾의 처음 해독한 曳자를 따랐다. 胡光燾가 金文과의 비교를 통하여 爭으로 隸定 하고 의미는 征伐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자, 張秉權·姚孝遂 등의 학자들이 이를 따랐다<sup>3)</sup>. 이곳에서도 爭으로 해독하겠다.

- ⑤ 貞: 이 글자는 원래 鼎의 모습을 본 따 만든 상형문자이다. 그러나 甲骨文에서는 대부분이 假借 되어 「(짐을 쳐서)묻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⑥ 旬亡D: 甲骨文 旬은 너무 간단하여 무엇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시간을 표시하는 名詞로, 甲日부터 癸日까지 모두 10일을 표시한다. 商나라 사람들은 매번 一旬의 마지막 날인 癸日에 다음 一旬의 吉凶을 占으로 물었다. 亡자는 甲骨文에 보이는 형태로만 판단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며, 卜辭에서 주로 有無의 無로 사용된다. 陳夢家是 《殷墟卜辭綜述》에서 “亡과 又是 對文이 되는데, 亡은 無 혹은 沒有의 의미가 있는 동

3)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第2冊, 999-1001 쪽

사로 사용된다. 卜辭에 사용된 부정사는 音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雙唇 塞音계열인 不과 弗이고, 다른 하나는 雙唇 鼻音계열인 勿과 毋이다. 이 4가지 단어의 의미와 語氣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점들이 있지만,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정확하게 나열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다른 단어들과의 결합관계에서 약간의 구별을 할 수 있다. 勿과 毋에는 희망을 명령하는 의미가 있는데, 희망을 명령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무엇을 하지 말라」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不과 弗의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sup>4)</sup>라고 하였다. D자는 갑골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災殃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의 뜻은 10일 동안 재앙이 없다는 것이다.

- ⑦ 三日乙酉 : 이 一旬의 제3번째 날인 乙酉 일이라는 의미이다.
- ⑧ 夕 : 밤(夜間)이라는 의미이다(제3편 今注③ 참조).
- ⑨ 月C食 : C자는 字書에 보이지 않는다. 于省吾는 《甲骨文文字詁林》에서 “卜辭에서 이 글자는 再又의 又와 有無의 有 福祐의 祐 그리고 祭名인 侑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근원에 관하여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누구의 학설이 옳은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sup>5)</sup>라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有無의 有로 사용되었다. 食자의 갑골문은 뚜껑이 있는 그릇에 음식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卜辭에서는 地名·飲食·日月食(蝕)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月食이라는 의미이다
- ⑩ 聞 : 이 글자의 甲骨文은 사람이 앉아서 손으로 입을 막고 귀로 무엇인가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聞자의 初文으로 보인다. 商代 사람들은 인간세상의 길흉화복 모두가 하늘과 조상신들이 관장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면,

4)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127-128쪽

5) 于省吾, 《甲骨文文字詁林》 第4冊, 3432쪽

하늘과 조상신들에게 이 일을 알려 그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원하였다. 聞은 바로 하늘이나 조상신들에게 보고하여, 그들이 들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다.

⑩ 八月: 이 占卜 이 거행된 시간이다.

3) 今譯: 「癸未일에 짐을 쳐서, 貞人인 爭이 <이 一旬(10일)동안 재앙이 없겠지요?>라고 묻다. 결과적으로, 제3번째 날이 되는 乙酉일에 月食이 있었으며, 이를 신에게 알렸다. 占卜은 8월에 거행되었다.」

5. 제5편

1) 隸定: (上) 「癸酉貞: 日月又食, 非若?」

(下) 「癸酉貞: 日月又食, 侏若?」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33694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4기로, 武乙·文丁 시기 卜辭다.

② 癸酉: 干支 紀日法으로, 癸酉일을 의미한다.

③ 日月又食: 甲骨文 又는 오른손을 본 따서 만든 글자이다. 卜辭에서는 「有無의 有·福祐의 祐(신의 복을 받다)·侏祭의 侏(제명)·左右의 右·再又의 又(또)」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

는 有無의 有로 사용되었다. 日月又食은 日月有食으로, 日食이나 月食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어떤 학자는 月을 夕으로 보아, 태양이 西山에 있었을 때, 즉 夕陽 때 月食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독하기도 한다. 그러나 甲骨文에서의 夕은 밤(夜間)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독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④ 非: 甲骨文의 非는 여러 형태로 출현되는데, 정확히 무엇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부정사·의문조사

·地名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부정사로 사용되었다

- ⑤ 若: 甲骨文的 若은 사람(여자)이 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순조롭다·만약」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순조롭다」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 ⑥ 隹: 甲骨文的 隹는 날개가 있는 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卜辭에서는 本義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假借되어 語詞를 표시하는데 쓰이고 있다. 卜辭 말기에 從口의 唯자가 출현하였으며, 이 때부터 唯자가 語詞를 표시하는 專用 글자가 되었다. 趙誠에 의하면 “卜辭에서 隹자의 語詞용법은 「피동 표시·發語詞·原因 표시·假說 표시·시간 표시·강조 표시」 등으로 사용 된다”<sup>6)</sup>고 하였다. 이 곳에서는 강조의 어기 작용이 있는 것 같다.

3) 今譯: (上) 「癸酉일에 (점을 쳐서) <만약 日食 혹은 月食의 현상이 나타나면, 순조롭지 않겠지요?>라고 묻다.」

(下) 「癸酉일에 (점을 쳐서) <만약 日食이나 月食이 발생하면, 역시 순조로울까요?>라고 묻다.」

## 6. 제6편

1) 隸定: 「E又于大歲, F」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集》의 33692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4기로, 武乙·文丁시기 卜辭다.

② E: 이 글자의 甲骨文은 두개의 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弓(활)을 보수하거나 보호하는 기



구를 표시하는 것 같다. 卜辭에서는 대부분 假借되어 否定을 표시하는

6) 趙誠, 《古文字研究·甲骨文虛詞探索》第15輯, 287쪽

副詞로 사용되었다.

- ③ 又 : 이곳에서는 侑祭의 侑로 사용되었다(제 3권 今注③ 참조).
- ④ 于 : 于자의 甲骨文 형태는 너무 간단하여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병렬을 나타내는 連詞와 場所·時間·對象(祭祀) 등을 나타내는 介詞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祭祀의 對象을 표시하는 介詞로 사용되었다.
- ⑤ 大歲 : 大는 太의 古文이니, 太歲다. 甲骨文 歲자는 戌(병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歲와 戌은 원래 같은 글자였을 것이다. 卜辭에서 이 글자는 「年」과 「祭名」으로 사용되고 있다. 太歲는 古代 中國 天文學에서 만든 가상의 별이다. 가상의 근원은 歲星(즉 木星)이다. 古代 사람들은 木星이 12년 마다 한번씩 하늘을 돈다고 여겨(실제는 11.86년), 黃道를 12등분하여 木星이 있는 자리를 歲名으로 삼았다. 그러나 歲星의 운행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黃道의 12支 방향과는 정반대가 되었다. 그래서 가상으로 歲星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太歲星을 만들어, 太歲星이 있는 위치에 따라 年을 헤아리도록 하였다. 후에 이 별은 神으로 받아들여져, 太歲神이 있는 方位나 反對의 方位에는 이사·결혼·여행 등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 卜辭에 대하여 陳夢家是 大와 歲를 띄어서, 大 뒤에 干支가 붙어 大乙혹은 大丁과 같이 인명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어떤 글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보여 진다.
- ⑥ F : 甲骨文의 이 글자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 모양은 옷과 붓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 붓이 거꾸로 되어 있거나 혹은 붓을 잡고 있는 손의 모양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인지 알 수 없으며, 字書에도 보이지 않는다. 卜辭에서는 모두 祭名으로 사용되고 있다.
- 3) 今譯 : 「<太歲에게 侑祭를 거행하지 않으면, F祭를 거행할까요?>」

7. 제7편

1) 隸定：(下)「庚辰貞：日又G，非D，佳若?」

(上)「庚辰貞：日G，其告于河?」

2) 今注

-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33698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4기로, 武乙·文丁시기 卜辭다.
- ② 庚辰：干支 紀日法으로, 庚辰일을 의미한다.
- ③ 日又G：G는 商代 사람들이 발견한 일종의 천문 현상이다. 陳夢家는 《殷墟卜辭綜述》에서 “G은 태양의 흑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殷代 사람들이 이미 태양의 흑점에 관하여 기록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陳邦懷는 <小屯南地甲骨中所發現的若干重要史料>에서 “달에 G가 있는데 이것은 달 가운데 있는 黃色의 점이다.”고 하고, 그리고 郭沫若은 《殷契粹編》에서 “日G는 日食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소개한 여러 학자들의 說은 추측일 뿐, 아직 G에 관하여 精確한 考釋은 하지 못하고 있다.
- ④ 非D：재앙이 없다는 의미다(제4편 今注⑥, 제5편 今注④ 참조).
- ⑤ 其：甲骨文 其는 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卜辭에서는 대부분 假借되어 疑問의 語氣를 나타내는 副詞로 사용하고 있다.
- ⑥ 告：과거에는 일반적으로 告는 舌자에 일획이 더한 것으로 보아, 「말하다·보고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甲骨文 告의 구성을 보면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精確히 무엇을 나타내었는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祭名·人名·보고하다」등으로 쓰이는데, 이곳에서는 祭名으로 사용되었다.
- ⑦ 河：河는 從水 可聲으로 이루어진 形聲字이다. 卜辭에서는 河가 先王과 함께 祭祀의 對象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先公(祖上神)의 명칭



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것으로 보아 自然神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또 黃河를 표시하는 專用字로도 쓰이고 있다. 이 卜辭의 내용을 살펴보면 黃河의 의미로는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先公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는지 自然神의 이름으로 쓰였는지 알 수 없다.

3) 今譯: (下) 「庚辰일에 <日G가 발생하였는데, 재앙이 없이 순조로울까요?>라고 묻다.」

(上) 「庚辰일에 <日G가 발생하였는데 河에게 告祭를 거행하여 이 일을 알릴까요?>라고 묻다.」

### 8. 제8편

1) 隸定: 「貞: 日C食?」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11408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② 貞: 짐을 쳐 신에게 질문하다는 의미이다(제4편 今注⑤ 참조)

③ 日C食: 日食이 발생하다는 의미다(제4편 今注⑨ 참조)

3) 今譯: 「<日食이 발생할까요?>라고 묻다.」

### 9. 제9편

1) 隸定: 「丙申卜, 羽日月比斗?」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21348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② 丙申: 干支 紀日法으로, 丙申일을 의미한다.

- ③ 卜：龜版에 불을 가하여 나타난 균열(징조)로 「짐을 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④ 翬日：甲骨文에서 이 글자는 새의 깃털을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아마도 새를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을 것이다. 卜辭에서는 「祭命」과 「翬日의 翬」·「人名」등으로 쓰이는데, 이곳에서는 다음날이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翬日의 翬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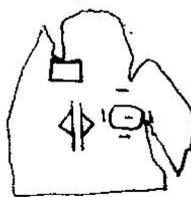
- ⑤ 月：달을 의미 한다(제3편 今注③ 참조).
- ⑥ 比：甲骨文的 比는 두개의 匕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가 너무 간단하여 무엇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든 글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병렬을 표시하는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다.
- ⑦ 斗：甲骨文 斗는 국자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국자를 표시하는 상형자이다. 卜辭에서는 本義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北斗星과 南斗星을 표시하는 글자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商나라 시대 사람들은 과학 지식의 한계로, 평상시와 달리 출현되는 별들의 운행들은 자신들의 길흉화복의 예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연히 달과 斗星이 함께 출현하면 두려움을 느껴 조상신이나 하늘의 신에게 길흉을 묻게 되었다.

3) 今譯：「丙申일에 <내일 달과 斗星이 함께 출현할까요?>라고 占을 치다。」

10. 제10편

- 1) 隸定：「丁卯暈。」
- 2) 今注

-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974正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 ② 丁卯：干支 紀日法으로, 丁卯일을 의미한다.
- ③ 暈：甲骨文的 暈은 태양과 그 주위의 4개의 선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태양 주위에 그리 밝지 않은 빛인 햇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暈의 初文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今譯: 「<丁卯일에 햇무리가 출현하였다.>」



11. 제11편

1) 隸定: 「旬壬申夕月C食。」

2) 今注

-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11482反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1기로, 武丁시기 卜辭다.
- ② 旬: 10일을 표시한다(제4편 今注⑥ 참조).
- ③ 壬申: 干支의 기일로, 壬申 일을 의미한다.
- ④ 夕: 저녁을 의미한다(제3편 今注③ 참조).
- ⑤ 月C食: 月食을 의미한다(제4편 今注⑨ 참조).

3) 今譯: 「<壬申일 밤에 月食이 발생하였다>」

12. 제12편

1) 隸定: (上) 「丁巳卜, 又入日?」

(下) 「丁巳卜, 又出日?」

2) 今注



-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34163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4기로, 武乙·文丁시기 卜辭다.
- ② 丁巳: 干支 紀日法으로, 丁巳일이다.
- ③ 卜: 龜版에 불을 가하여 나타난 균열(징조)이다.
- ④ 又: 祭名으로 사용되는데, 侑祭다(제5편 今注③ 참조).
- ⑤ 入日: 甲骨文의 入은 형체가 너무 간단하여, 무엇을 나타

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 入은 「進入하다」는 의미와 「納入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納入이라는 것은 方國에서 거북의 껍질을 商나라에 貢物로 보내다는 의미이다. 이곳에서는 進入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해가 西山으로 진입하였으니 落日(석양)이라는 의미이다.

⑥ 出日: 出은 나아가다는 의미가 있으니, 出日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제2편 今注② 참조).

3) 今譯: (上) 「丁巳일에 <入日에 대하여 侑祭를 거행할까요?>라고 짐을 치다.」

(下) 丁巳일에 <出日에 대하여 侑祭를 거행할까요?>라고 짐을 치다.

### 13. 제13편

1) 隸定: 「至日H?」

2) 今注

① 이 편은 《甲骨文合集》의 28261版이다 傳統의 五期分法에 의하면 제3기로, 廩辛·康丁시기 卜辭다.



② 至日: 甲骨文 至는 從矢과 從一로 구성되어, 化石이 도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卜辭에서 도달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도달할 장소를 표시할 때 사용하였다. 2) 어떤 시간으로부터 어떤 시간까지를 표시할 때 사용하였다. 3) 商王이 祖上들에게 제사를 거행할 경우, 어떤 조상부터 어떤 조상까지를 표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冬至와 夏至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신되어 사용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冬至와 夏至를 의미로 사용되었다. 中國 古代 사람들은 그림자의 길이를 측량하여 夏至와 冬至를 정하였다. 夏至날 正午의 그림자 길이가 가장 짧고, 冬至날 正午의 그림자 길이가 가장 길다.

③ H: 甲骨文 H는 從酉 從彡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

기 위하여 만든 글자인지 알 수 없다. 卜辭에서는 대부분 祭名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마도 술을 사용하여 거행하는 祭祀인 것 같다

3) 今譯: 「<至日에 H祭를 거행할까요?>」

### Ⅲ. 맺는 말

본 논문은 《甲骨文合集》에서 天文과 관련이 있는 主要 卜辭 13편만 골라 考釋하였지만, 전체 甲骨文 卜辭 가운데 曆法과 관련이 있는 卜辭는 적지 않다. 天文과 관련이 있는 卜辭들을 살펴보면, 商나라 사람들의 天文學에 관한 지식수준이 매우 높아서, 세계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천문학에 관한 지식은 다음과 같다.

- 1) 日食과 月食: 商나라 사람들은 日食과 月食을 관찰하고, 이를 卜辭에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 천문학 역사에서 관측 날짜가 정확히 병기된 日食과 月食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이다.
- 2) 별자리: 商나라 사람들은 별자리에 관한 관측 기록을 남겼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火星에 관한 관측 기록이다. 이것들은 商나라 사람들이 이미 별자리의 변화를 이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 3) 至日(冬至와 夏至): 商나라 사람들은 이미 1년 가운데 낮의 길이가 가장 긴 夏至와 가장 짧은 冬至를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1년 365일을 4등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卜辭에는 약간의 天文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전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그것이 어떤 천문 현상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 參考文獻 >

- 郭沫若等, 《甲骨文合集》(中華書局), 1982.  
郭沫若, 《甲骨文字研究》(香港 中華書局), 1955.  
郭沫若, 《卜辭通纂》(科學出版社), 1983.  
唐蘭, 《殷虛文字記》(中華書局), 1981.  
徐中舒主編, 《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 1990.  
王貴民等編, 《甲骨探史錄》(三聯書店), 1982.  
王宇信, 《建國以來甲骨文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王宇信主編, 《甲骨文與殷商史》第三輯(上海古籍出版社), 1991.  
于省吾, 《甲骨文字釋林》(中華書局), 1979.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中華書局), 1996.  
李孝定, 《甲骨文字集釋》(臺北: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65.  
張秉權, 《殷墟文字丙編考釋》(臺北:中央研究院 歷史研究所), 1972.  
丁福保, 《說文解字?林》(臺北 鼎文書局), 1983.  
丁山, 《甲骨文所見氏族及其制度》(中華書局), 1988.  
趙誠, 《甲骨文簡明詞典》(中華書局), 1988.  
陳夢家, 《殷墟卜辭綜述》(中華書局), 1990.  
許進雄, 《中國古代社會》(臺北:商務印書館), 1988.  
胡厚宣主編, 《甲骨文與殷商史》第一輯(上海古籍出版社), 1983.  
胡厚宣主編, 《甲骨文與殷商史》第二輯(上海古籍出版社), 1986.  
姚孝遂, <再論古漢字的性質>, 《古文字研究》第17輯, 1989.  
趙誠, <甲骨文虛詞探索>, 《古文字研究》第15輯, 1986.

< 中文提要 >

卜辭中反映出的商人天文學水平相當高, 當時是處於世界領先地位的. 他

們的成就主要是：

1) 日食與月食：觀測並記載了日食與月食，使之成爲世界天文學史上最  
早的記有日期的日食與月食記錄

2) 星宿：留下了對星宿的觀察記錄，其中最著名的是對火星的觀測記錄，  
這些活動表明商人已開始利用星宿法則定季節的變換。

3) 至日：商人對「至日」已能測知，這表明商人已掌握了「四分歲實(即1年  
爲365天又4分之1日)」

除了這三點外，卜辭中還記錄了另外一些天文現象，限於目前研究水平，  
我們尚不知道它們是於哪一類天文現象，本論文作了一些選錄，以供參考。

주제어：鳥星，大晶，火，月食，日食，歲，斗，入日，出日，至日

K C I